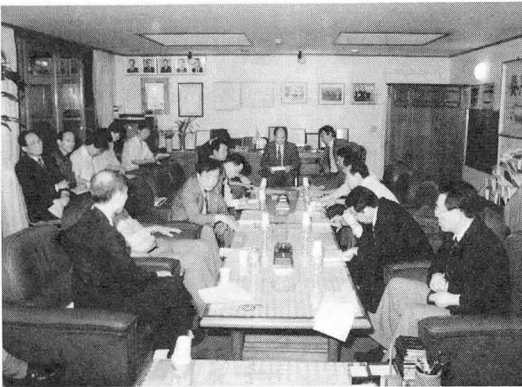


# 협회소식

## 돈육수출촉진대책협의회 개최



본회의 '93년도 제1차 돈육수출촉진대책협의회(회장: 기정도)가 지난 8월 13일 본회 임원실에서 동협의회 위원과 한국육가공협회, 두송상사 등 수출관련 단체 및 업체 임직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돼지고기 수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대일 돈육수출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돼지생산비의 절감과 균일 품질의 규격돈 생산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일 돈육 수출국중 우리나라가 가격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수출원료돈 생산농가에 지급키로 한 보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TLC검사 확인서만 제출하면 해당지역 축협에서 생산농가에 곧바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두송상사 이위형 전무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일본의 돈육 비수기인데다 일본의 국내 돈가마저 하락, 우리의 냉동육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냉장육 위주의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콘테이너분 즉 약 7톤 가량의 수출돈육을 생산키 위해서는 약 350두의 돼지를 도축해야 하나 규격돈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750~800두의 돼지를 도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맛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수출여력은 충분하며 규격돈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약 3배 정도의 수출물량 증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본회는 이날 회의를 계기를 돼지고기 수출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 본회, 축산폐수에서 재활용 처리 분뇨 제외 건의

### —환경처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7월 19일, 축산폐수의 정의에서 재활용 처리되는 분뇨는 제외시켜 줄 것을 환경처에 건의했다.

본회는 지난 6월 30일 환경처에서 입법예고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현행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축산폐수를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본회는 이를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 또는 방류되는 물질로 개정토록 요구했으며 재활용 처리 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토록 요구했다.

본회가 이처럼 요구한 것은 가축 배설물 자체를 오염물질로 정의하는 것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복합 영농을 인식하지 못한 정의이며, 재활용 처리는 오염방지와 유기비료 생산으로 토양의 산화방지효과가 큰 데도 현행법에서는 퇴비화 처리가 정화처리의 한 수단으로 다루어짐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 단체에서 말아야

### - 본회, 농수산부에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8월 4일 사료유통안정 위원회의 신설과 사료제조업 등록의 단체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19일 입법예고된 사료관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에서 본회는 이와 같이 밝히고 이는 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민간주도형의 품질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안정위원회는 농산부장관의 자문역할을 하여 관련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양축농가, 축산단체 대표, 사료제조업자,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배합사료 제조업의 등록은 농수산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하는 것으로 바꿔 행정규제완화차원의 민간주도형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도 사료수급 및 유통안정위원회의 설치와 사료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해지부 한약돼지고기 숯불구이 무료 시식회 개최



김해지부(지부장: 김위진)는 지난 8월 3일 김해시 부원동 부산·경남양돈조합 앞에서 한약돼지고기 숯불구이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다.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날 시식회에는 거리를 지나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요리의 처방은 동의보감에 근거, 감초, 산사, 육계, 정향, 곱향 등의 한약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는데 동지부에 의하면 이 요리는 진폐, 노화, 갱년기 장애에 좋으며 강장, 강정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김해지부는 한약학회와 한의학회 등으로부터 이 요리의 효능을 인정받아 육가공공장과 협의, 한약이 첨가된 양념포장육을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안양·시흥지부 영농조합법인 설립키로

안양·시흥지부(지부장: 김찬채)는 지난 8월 16일 지부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동지부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돼지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사료 및 약품을 공동구매하며 자가혼합사

료제조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 오는 9월 까지 창립총회개최가 가능하도록 준비키로 했다.

현재 15명의 회원이 참여의사를 밝힌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면 각종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양돈연수를 다녀온 동지부 김동환 감사가 대만과 덴마크의 양돈상황을 소개했다.

### 충북도협의회 개최

충북도협의회(회장 : 김철수)는 지난 8월 18일 옥천 지부 사무실에서 도내 각 지부장과 임원, 본회 박병양, 상무, 정호풍 지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화훼산업과 같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돈업을 공격형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도내 전 지부장이 모두 참석, 우리 양돈의 어려운 현상황을 우려하는 양돈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 전남도협의회 하계수련대회 개최

전남도협의회(회장 : 전재명)는 지난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남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소재 청용백사장에서 본회 기정도 부회장, 최희태 이사, 허규완 전남도 축산과장을 비롯 도내 각 지부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내 양돈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양돈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개최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허규완 전남도축산과장이 「전남양돈산업의 진로와 정책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남도의 양돈정책을 소개했고 토론, 장기자장, 낚시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무안지부장에 정형기씨 선출



정형기 지부장

무안지부는 지난 6월 30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새 지부장에 정형기씨(39세)를 선출했다. 정지부장은 현재 「두레축산」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정형기

△부지부장 : 김영식

△총무 : 손승용

### 청주지부장에 유인종씨 선출



유인종 지부장

청주지부는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유인종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했다.

유인종지부장은 지난 '92년에도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청원군 옥산면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개편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유인종

▲관리이사 : 신길수

▲이 사 : 신길수, 양덕주, 윤진구, 김대봉

▲감사 : 최광조, 황학영

### 온양·아산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온양·아산지부(지부장: 김현병)는 지난 8월 27일 아산군 송악면 강당리 마리골별장에서 관내 양돈관계 인사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 제주지부장에 김충세씨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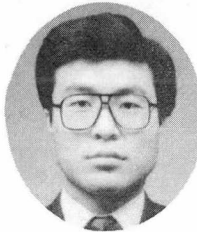
제주지부는 지난 7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충세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김지부장은 현재 「충세종축」을 경영하고 있다.

## 협회 단신

#### 본회 직원 채용



정지문씨



정진영씨

본회는 최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도부에 정지문씨, 홍보부에 정진영씨를 새로 채용했다.

■ 신입직원 : 정지문(30세, 성균관대 농업경제학과 졸), 정진영(26세, 충남대 축산학과 졸)

#### 서천지부 여직원 채용



노성원양

서천지부(지부장: 김동부)는 최근 노성원양(24세)을 새로 채용했다. 노양은 군산실업전문대학을 졸업했다.

#### 서울지부 여직원 채용

서울지부(지부장: 나일규)는 최근 지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인숙양을 새로 채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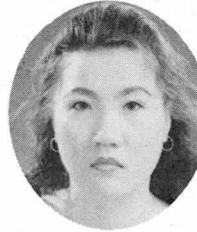
#### 수원지부 여직원 채용

수원지부(지부장: 맹달호)는 업무활성화를 위해 최근 박남숙양을 새로 채용했다.

#### 대전지부 여직원 채용

대전지부는 최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박선화양을 새로 채용했다.

#### 김해지부 여직원 채용



이경숙양

김해지부(지부장: 김위진)는 지난 8월 7일 이경숙양(21세)을 새로 채용했다. 이양은 부산 배정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